

재속 프란치스코회 성 비오 사제 형제회 قام, 미국령

셰론 윈젤러, OFS



2020년 1월 4일 قام에 위치한 성 비오 사제 형제회의 설립식으로 재속 프란치스코회 미국 국가형제회는 미국 가장 서쪽 끝까지 연결되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국가형제회 총봉사자 쟈 파커 자매는 “성령께서 성 비오 사제 형제회의 형제자매들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이는 단지 아름다운 표현이 아닙니다. 이 프란치스코들은 “예”, “이루어지소서”, 자신의 성소와 그에 따른 모든 것에 “예”라 답하며 마음을 열었습니다”라 하였습니다.



이 축제의 설립미사는 Agana Heights에 위치한 복된 성체 가톨릭 성당에서 거행되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을 위하여 직접 만든 알몬드 과자 1,200개가 준비되었습니다 (야고바

부인이 구운 알몬드 과자를 사부님께서 좋아하셨고 병상에서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셨음). 미사 후 바닷가에서 그리스도 탄생의 성탄 캐롤을 부르며, 성인의 말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다시 시작합시다”라 장식된 케익과 브런치를 나누었습니다. 새로 설립된 형제회 28명의 회원과 가족, Agana Heights의 성 피델리스 수도원의 수사님 여섯분이 함께 참석하여 웃음과 기쁨으로 피로연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태평양 미크로네시아의 미국령 قام은 샌프란치스코에서 비행편으로 12시간이 걸리고 16만 인구 중 75 퍼센트가 카톨릭으로서 섬의 길이는 30마일이고 너비는 12마일입니다.

23명의 서약자와 4명의 지원자와 1명이 오리엔테이션 과정에 있는 이 형제회의 봉사자는 비오레타 마니부산 자매입니다. 2011년부터 형제회 설립을 준비해 왔고 카푸친 요셉 잉글리쉬 부관구장께서 영적보조자로 임명한 카푸친 페트릭 카스트로 신부님께서 서약자들을 양성하셨습니다.

설립 미사를 집전한 카스트로 신부님은 “주님과 국가형제회 상임위원회의 인도를 따른 9년간의 여정을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라 하시며, “지금은 축복과 기쁨의 시간이자 권고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계속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살기 위해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하시며 회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형제회로 표현된 회원들의 결속을 칭찬하시며 “우리는 프란치스코처럼 겸손과 봉사와 사랑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

이 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형제회는 그리스도의 빛을 간직합니다. 하루 스물네시간 항상 서로 격려하며 소통합니다”라 강론 중 말씀하셨습니다.

마니부산 자매에 의하면 카푸친 수사들은 꾀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1901년 8월 12일 꾀 도착 후 1900년경까지 대부분 본당에서 카푸친 수도자들께서 사목하셨습니다. 현재 다섯개의 카푸친 본당이 있고, 우리 형제회 회원들 대부분 이 본당들 소속입니다.”

형제회는 여러 배경의 회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마니부산 자매는 “35세에서 75세의 여러 삶의 여정의 회원들은 섬 전체 26개의 본당 중 10개 본당에 소속되어 있고, 지자체와 연방정부에서 교육, 관리, 경리, 토목, 엔지니어, 법조계 일에 종사하고, 은행, 항공사, 제과점 등의 사영업에 종사합니다”라 합니다.

형제회는 Agana Heights 성 피델리스 수도원에서 한달에 두번 만나는데, “매 두번째 토요일 기도와 초기 양성 모임이 있고 넷째 토요일에 모여 형제회, 기도, 영속적 양성, 친교를 합니다.” 많은 회원이 낙태반대와 병자, 가난한 사람, 노인들에게 음식과 옷 제공, 방문 등의 활동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몇 회원은 연고자 없는 사망자들의 그리스도교 장례를 제공하는 아리마태아 성 요셉 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이식, 피정, 대림, 사순, 매일 비오 신부 9일 기도, 성모님 화관식 등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수립을 위해 회원들과 국가형제회 상임위원회와 협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형제회 상임위원회의 인도로 2012년 콜로라도 덴버에서 개최된 미국 국가형제회 총회에 참석하여 상임위원회와 첫 모임을 가지

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당시 국가형제회 양성팀의 밥 피츠몬스 형제의 초청으로 하와이에서 열린 FUN 지침서 세미나에 참석하였고 이 지침서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용하였습니다. 2016년 메리 프란치스 차스키 자매가 상임위원회 연락책임자로 임명되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란치스칸 여정 책을 소개받았습니다. 2017년 2월부터 미네소타 평화의 모후 지구형제회의 팀과 캐티 타올미나 형제자매가 꾀에 와서 양성을 도왔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다이엔 멘디토 자매 지도 아래 국가 양성위원회로부터 FUN 지침 추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가형제회 상임위원회의 도움은 계속되어 “다이엔 자매는 계속 양성을 돕고 있고 2019년부터 프랜신 기코우 자매는 우리의 양성 봉사자 데레사 바바우타 자매를 돕고 있습니다. 현 국가형제회 연락담당은 조쉬와 모래돌 형제인데 지난 1월 설립식에 쟈 파커와 하와이 오하나 오 케 아누에누에 지구형제회 봉사자인 엘리사벳 이쉬미추 자매와 함께 참석했었습니다.

쟈 자매는 새 형제회와 다른 단위 형제회의 중요성을 지적했습니다. “단위 형제회는 국제형제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보고 세상의 그리스도가 되는 우리의 공동 임무인 목격자와 도구가 되는데 도움을 받는 곳이 단위 형제회입니다. 이럼으로써 모든 프란치스칸들은 교회 재건의 자기 몫을 하게 됩니다.”

성 비오 사제 형제회 평의원은 부봉사자 데레시타 플로레스, 서기 조앤 샌 니콜라스, 회계 벤 디아즈, 양성봉사자 데레사 바바우타, 평의원 비테나 토베스입니다.